

광양와인동굴, 전국 첫 '동굴 체험학습장' 도약

석정 제 2터널 추가 개발...학생·가족 단위 단체관광객 유치
관광객 안전 위해 제 1터널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장

광양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양와인동굴이 석정 제2터널의 추가 개발을 통해 전국 최초 동굴 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난다.

지난 2017년 7월 개장한 광양와인동굴은 (주)나르사관광개발(대표 최무경)이 35억원을 투자해 페터널(석정 제1터널)을 세계 와인 전시·판매장, 트리아트, 미디어 파사드 등 현대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지금까지 30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광양의 핫 플레이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발하는 석정 제2터널은 길이 290m, 높이 6.5m 규모로 광양와인동굴(석정 제1터널)에 연결해 있으며 학생과 가족 단위의 단체 관광객 체험거리 확충을 위해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관광객 안전을 위해 개장 중인 제1터널을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임시 휴장한다.

(주)나르사관광개발에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체험장 조성공역을 완료하고, 선진 체험학습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문객이 보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광양의 핫 플레이스로 부각하고 있는 광양와인동굴.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석정 제2터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안내판 설치와 인근 역만전 정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와인동굴-사라실예술촌약 2km 구간

의 연결루트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석정 제2터널 개

발로 광양와인동굴이 전남도립미술관과 사라실 예술촌, 사라실 라벤더단지, 점동 금광마을 등과 함께 광양읍권 관광지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 업무협약 철박한 지역 인구문제 해소 나선다

광양시가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손을 잡았다.

시는 10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 북 광양시장, 김학동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활력증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은 저출산과 함께 지역 사회의 이슈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 직장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출산·육아부담 경감 등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속 직원의 지역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아동 전문병원 유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 환경을 만들고,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주)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시작으로 '인구 활력증진 협력 업무협약'을 지역 기업체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 개조·증축 행위 강력단속

16일부터 7t이상 137척 대상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낚시어선이 선체 개조와 증축 등을 시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낚시꾼들이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 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한 불법 개조나 임의 변경은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 (아크릴 소재로 지붕·차양·벽·문)를 설치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통을 설치하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실 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7t 이상

의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시배 과열 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6명)으로 관례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창군, 맞춤형 징수 활동

고창군은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정토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편성, 오는 11월말까지 징수활동을 펼친다.

군은 징수활동 일환으로 자동차관련 유관기관들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체납일로 60일 경과된 30만원 이상자)이다.

체납차량은 9월말 기준 1254대다. 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는 자진납부 홍보와 함께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에 나선다.

아울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다만 단속체납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정읍시 국제교류 확대 '국제화추진위' 출범

시, 언론·학계 인사 등 13명 구성...다양한 활동 기대

정읍시가 지난 10일자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시청 공무원 2명과 언론, 학계, 문화예술 등에서 추천한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향후 2년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시의 국제화업무추진에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또 국제교류사업에 있어 관과 축제중심의 교류에서 탈피, 민간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시는 지난 2000년 중국 강소성 서주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와 우호결연을 맺었다.

이를 통해 서주시에서 개최하는 한문 화관광제와 체육교류·국제미술교류전에 참여해 우호를 다졌다.

나리타시와는 중고등학교 홈스테이를 26회 추진하고 큰북 축제 등에 공연단을 파견했다.

또한 시는 2016년에는 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정읍공예단을 파견하는 등 우호증진 상생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읍시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전국체전 사진·영상 공모전 갖는다

익산시는 전국체전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 경기 장면과 시민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

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오는 31일까지 메일(ckdnjs9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내용은 양대 체전 기간 중 진행되는 경기 장면과 문화행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등 체전 관련 사항이다.

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입선 8명 등 총 16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홍보담당관실(063-859-502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